개혁주의 신학과 웨슬리안 신학의 대화를 위한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웨슬리의 예지예정론 비교 연구

최인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한국 땅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의 여러 교파들이 다양한 신학적 배경 하에 들어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신학은 칼뱅의 개혁주의 전통과 웨슬리의 복음주의 전통이다. 전자는 주로 장로교신학이 주도하고 있고, 후자는 감리교와 성결교신학이 주축을 이루면서 나사렛, 구세군 및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신학이 동참하고 있다.[1] 그러나 칼뱅과 웨슬리 신학 전통은 각기 교단 선교 100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도 깊은 교리적 차이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가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2] 그렇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웨슬리안 전통에서는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이 주창해온 '이중예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윤리적 책임을 약화

1) 성결교회의 신학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신학"으로서 이의 전통적인 교의학적 주제들은 대부분 존 웨슬리와 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존 플레처(John W. Fletcher, 1729-1785) 그리고 성결교회의 창립자 마틴 냅(Martin W. Knapp, 1853-1901)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편, 『성결교회신학: 개신교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신학』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특히 10-94.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육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2013. 5. 14) 「한국기독교 교단별 교세 현황표」(2011년 기준)에 따르면, 칼뱅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합동, 통합, 고신, 기장) 신자는 6,682,666명, 웨슬리안에 속하는 교단(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순복음) 신자는 3,635,143명이다. 양대 전통에 속하는 교회들이 좀 더 큰 틀에서 신학적 대화의 발전을 모색할 이유가 분명하다.

시킨다고 외면해 왔고, 장로교 전통에서는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완전성결론은 펠라기우스적으로 혹은 알미니우스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칼뱅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비롯된 교파간의 갈등 양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칼뱅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칼뱅과 웨슬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예정론은 칼뱅이 최초로 창안한 고유한 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도 예정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리처드 멀러(Richard Muller)가 한국에 와서 "칼뱅은 칼뱅주의자인가?"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칼뱅의 사상을 칼뱅주의와 구별하면서도 칼뱅주의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간의 칼빈주의는 칼뱅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고, 대신에 예정론을 신론에 위치시켜 칼뱅의 신학을 예정론적이며 형이상학 의존적 신학으로 만들었다; (2) 칼뱅의 사상에는 인문주의와 스콜라주의 요소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간의 칼뱅주의는 칼뱅을 언약적 인문주의자로 혹은 예정론적 스콜라주의자로 만들었다; (3) 속죄론과 관련하여 칼뱅주의는 무제한적 속죄를 지향하는 쪽과 제한적 속죄의 엄격한 신학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4) 언약신학의 차원에서는 언약의 일방성과 쌍방성을 동시에 주장하는 칼뱅주의와, 언약의 일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칼뱅주의로 갈라졌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칼뱅'과 '교리적 칼뱅주의'를 구분하여 웨슬리로 하여금 역사적 칼뱅을 만나 대화케 함으로써 양자 간에 서로 상반적으로 보이는 예정론의 이슈들에서 상호 수렴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점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실제로 웨슬리가 비판적으로 논쟁하며 거부한 것은 칼뱅 자신의 역동적 개혁사상이 아니었다. 웨슬리는 칼뱅주의자들의 극단적 신단동주의(monergism)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단들, 예를 들면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부정될 수 있고, 성

3) Richard A. Muller, "Was Calvin a Calvinist?" *Back to the Bible: Life, Gospel and Churc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35th Anniversary of Baekseok Schools(Oct. 28, 2011), 15ff.

결한 삶에 대해 강조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불 보듯 보았다.[4] 그러므로 여기에 교회 개혁의 역사적 현장에서 성서의 진리를 변증하고 선포하였던 '칼뱅'과 칼뱅신학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체계화된 '칼뱅주의'가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웨슬리가 끝까지 반대했던 극단적인 칼뱅주의(Hyper Calvinism)는 이미 하나의 교의학적 신조와 규범으로 굳혀짐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로 선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5] 이때 웨슬리가 당시 영국 국교회의 상황에서 '하이퍼 칼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칼뱅의 예정 사상을 칼뱅 자신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 했는지 묻게 된다. 그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적용하게 될 '신비교방법론'(New Comparativism)으로 역사적 칼뱅의 정신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논의할 교의들의 콘텍스트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칼뱅과 웨슬리가 살아 있는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웨슬리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예정론은 칼뱅주의 전통 하에서 그리고 웨슬리안 복음주의 전통 하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신학적 전통의 고유한 입장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교리적 수사(修辭)와 편견에 매이지 않고 그 본래의 정신과 '신학적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간에 치열하게 공격하고 변증함으로써 견지하고자 했던 참된 성서적 교의(敎義)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을 위

---

4) 참조, Randy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56, 91.

5) 참조, Clark Pinnock, Richard Rice, John Sanders, William Hasker, David Basinger,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 Grove: InterVarsity, 1994); Clark Pinnock,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Cumbria, UK: Paternoster, 2001); Clark Pinnock/John Cobb, ed.,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Grand Rapids: Wm. Eerdmans Pub., 2000)의 저자들 특히 클라크 피녹크와 같은 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극단적 칼뱅주의를 비판하고 나오면서 새로운 신학을 모색하고 있다; Roger Olson,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역시 미국복음주의신학회 안에서 피녹크와 함께 새로운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올손의 피녹크 소개를 참조, R. Olson,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The Christian Century* 119/3(Jan 30–Feb 6, 2002), 37–39.

해 우리는 1897년에 마틴 냅(M. Knapp)과 셋 리스(S. Rees)가 만국성결교회를 설립할 때 주장했던 모토 "본질적인 것들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를, 모든 일들에는 사랑"[6]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양대 신학 전통의 기원을 이룬 칼뱅과 웨슬리의 예정론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7]

연구사적 차원에서 볼 때, 칼뱅신학과 웨슬리신학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자신이 속한 신학 전통 안에서 각자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들에 비하면 양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물들에는 와인쿱(M. Wyncoop)의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1967), 요컴(D. Yocum)의 『기독교신조 대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연구』(1988), 웨인라이트(G. Waynright)의 *Wesley and Calvin*(1987)과 *Methodists in Dialogue*(1995) 등이 있다.[8]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양대 전통

---

6)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incinnati: God's Revivalist Press, 1900), 1;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7) 김상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알미니안 칼빈주의의 태동: 한국교회의 선교 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 (2006), 402. 이미 한국교회사의 초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안에서 칼뱅전통과 웨슬리전통이 만나 소위 "알미니안적 칼빈주의"가 태동되었다는 연구가 나왔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구원론을 서서히 극복하고,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체적인 반응(비록 대중 심리가 압력으로 작용했지만)을 통해 인간의 감정적 선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다. … 이 점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초라고 알려져 있는 원산에서 시작된 초기의 심령 부흥 운동이 '알미니안적인'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가 장감(長監)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신학적 유연성이 한국 교회의 특성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8) Mildred B. Wyncoop, *Foundations of Wesleyan-Arminian Theology* (Kansas City: Beacon Hill Press, 1967);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와인쿱은 예정교리의 발전 과정을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하여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개관하면서 칼뱅주의, 알미니안주의, 및 웨슬리주의의 입장들을 단순비교하고 있다. Dale M. Yocum, *Creeds in Contrast: A Study in Calvinism and Arminianism* (Salem: Schmul Publ., 1986), 손택구 역 (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88). 양대 전통의 주요한 신학적 이슈들을 강경한 칼뱅주의, 온건한 칼뱅주의, 웨슬리안-알미니안의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비교하였다. Geofrey Wainright, *Geofrey Wainright on Wesley and Calvin: Sources for Theology, Liturgy and Spirituality* (Melbourne: Uniting Church Press, 1987). 양대 신학전통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차이와 유사점들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Geofrey Wainright, *Methodists in Dialogue* (Nashville:

이 지니는 각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탈역사적(ahistorical) 교리적 담론을 전개함으로 양자 간의 대립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오류들이 발견된다. 다른 한편, 고무적이게도 근래에 들어와 의미있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9] 특별히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적극적인 만남을 주창하고 있는 올손(Roger Olson)의 최근 글은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10]

비교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들이 대체로 범하고 있는 점은 그 비교 방법이 탈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 연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종교학자 윌리엄 페이든(William E. Paden)의 '신 비교주의'(New Comparativism)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시되는 "세계"(world)라는 개념에 따라 우리는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모형 분석과 특수 문화적-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11] 이 방법은 그간의 종교학

Kingswood, 1995). 에큐메니컬적 관점에서 칼뱅과 웨슬리를 비교하였고, 선택 교리에서는 선택과 유기를 변증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한 칼 바르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칼뱅과 웨슬리를 비교한 최초의 문헌은 1856년 7월 17일에 미국 오하이오주 옥스퍼드에서 행한 연설로 보인다: Samuel W. Fisher, *John Calvin and John Wesley* (Cincinnati: Moore, Wilstach, Keys, & Co., 1856). 이외에도 칼뱅과 웨슬리의 사상을 비교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Dennis D. Lyons, *Calvin's and Weley's Doctrine of Assurance: A Comparative Study* (M.A.T.S Thesis, Talbot School of Theology, 1986).

9) 김홍만, "존 웨슬리가 본 칼빈주의," 「한국개혁신학」 32 (2011), 15-46. 김홍만은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웨슬리가 비판한 것은 칼뱅의 신학이 아니라,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존 길(John Gill)과 그의 추종자 제임스 하비(James Harvey) 등이 내세운 "하이퍼 칼빈주의"였다고 밝히고 있다; 유창형,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성경과 신학」 45 (2008), 112-141. 그는 성화의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이해가 웨슬리와 칼뱅 모두에게 있었다고 보면서, 특히 『기독교강요』에 근거한 성화의 점진성뿐만 아니라, 칼뱅의 삶에서 관찰되는 순간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철원, "웨슬리와 칼빈의 성서해석 방법론의 연속성 문제," 「성결교회와 신학」 15 (2006, 봄), 142-165. 그는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도 성서 저자와 본문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칼뱅과 웨슬리의 전통적 해석은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유효"하다고 밝혀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물들이 지니는 공통점은 칼뱅과 웨슬리 양자 사이에는 시대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신학적 공동지반이 있다는 것이다.

10) Roger E. Olson, "Don't Hate Me Because I'm Arminian," *Christianity Today* 43/10 (Sep. 6, 1999), 87-94.

11) Willam E. Paden, "El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Method & Theory in the*

과 신학에서 지배적으로 활용되어온 엘리아데(M. Eliade)식의 고전적 비교주의(Classical Comparativism)의 유형론적 비교방법을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12] 유형론에서는 종교적 의미의 초역사적 모형(trans-historical pattern)에 따라 콘텍스트를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비교의 대상들을 이들의 실제 맥락과 무관하게 단순비교로 일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왜곡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계가 노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칼뱅과 역사적 웨슬리를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텍스트를 읽고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차원에서 비교를 시도한다.[13]

I. 칼뱅의 이중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자유-무조건적 선택

칼뱅이 자신의 예정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칼뱅의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 하나님이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작정, 은총, 주권, 예정, 선택과 유기, 믿음과 불신앙,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라는 교리적 개념들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이들이 칼뱅의 이중예정론이라는 범주 하에서 어떤 신학적 상관성을 갖는지, 칼뱅이 당시 시대적으로 직면했던 교회론적 위기의 관점과, 구원의 확신과 연관된 신앙론의 관점에

Study of Religion, 8/1(1996), 11f.

12) 김종서, "현대 종교학의 비교방법론: '신비교주의'(New Comparativism)를 중심으로," 『동서사상의 정체 형성과 21세기 한국사상의 정립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2), 15.

13) 칼뱅주의 신학자 최윤배는 기존의 칼뱅연구가 한국과 북유럽 쪽에서는 "교의학적 접근이 강세를 이루는 경향"이고, 남유럽과 영미 쪽에서는 "교회사적 접근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역사적 연구와 교의적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방델(F. Wendel)을 좋은 모델로 소개한 것은, 한국의 교의학 연구에 역사적 접근이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는 이를 "교리사적 방법론"으로 명명한다. 최윤배, "성령론: 연구 방법론과 성령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173. F. Wendel/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와 W. J. Bouwsma/이양호, 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 나단, 1993) 역시 칼뱅의 생애와 사상의 역사적 관점을 잘 드러낸 연구로 보인다.

서 이해하고자 한다.[14]

1. 그리스도 신앙으로 반전(反轉)된 교회: 선택된 개혁교회, 유기된 가톨릭교회

교회개혁에 불타는 사명으로써 일관했던 칼뱅에게 시대적으로 가장 힘겨운 싸움의 대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칼뱅을 따르는 개혁교회의 어려운 현실이었다. 개혁교회가 처해 있던 유럽은 칼뱅의 눈에는 한 마디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개혁교회는 "땅 밑에 숨겨져" 있으며, 신실한 사람들은 대부분 "드문드문 흩어져 있어" 찾아내기 힘들며, 신자의 "수효가 대단히 적고 그러면서도 (가톨릭)교회에 붙어 있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경멸당하고 거의 거절당하는" 처지에 있는 모습이 마치 "커다란 왕겨더미 밑에 깔린 곡식 세 알갱이"와 같이 보였다.[15]

칼뱅은 자신의 교회와 가톨릭교회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교하면서 창세기 25:12-22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통해서 참 교회가 믿고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16] 이스마엘로 비유된 가톨릭교회와 이삭으로 비유된 개혁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의절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성하여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열두 아들을 낳아 열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 나

---

14)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24. 그에 따르면 예정론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위로와 확신의 교리"로 출발하였으며, 또한 "종교개혁 정신의 신학적 표현"으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이오갑도 예정론 안에서 "칼뱅의 일차적인 관심이 교회론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론적 관점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15) John Calvin/임원주 역, 『칼빈의 예정론 핵심 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0), 33. 이하 『설교』로 표기함; 본서는 칼뱅이 1562년에 프랑스어로 출판한 것을 존 필드(John Field)가 번역하여 1579년에 런던에서 *Sermons Entreating of the Free Election of God in Jacob and of Reprobation in Esau*란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영역본 참조: John Calvin, *Sermons on Election & Reprobation by John Calvin*, foreword by David C. Engelsma (Audubon: Old Paths Publications, 1996).

16) Calvin, 『설교』, 32.

이 사십에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한 두 해가 아니라 이십 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습니다.[17]

칼뱅은 가톨릭교회를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던 아브라함 집안 출신"의 이스마엘로 비유하면서 "이 시대의 교황주의자"인 그들이 사도 계승권을 신뢰할지라도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단지 사생아에 불과(한)" 존재라고 비판한다.[18] 이처럼 칼뱅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목회적"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19] 칼뱅은 가톨릭교회에 짓밟히고 있던 개혁교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형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는 근거 하에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신앙으로 언약 가운데 있는 개혁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신앙이 아닌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톨릭교회는 이스마엘처럼 유기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했다.[20] 이삭과 같이 개혁교회가 약속의 자녀인 보증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인 것을 칼뱅은 강조하였다.[21] 이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교회의 "믿음"이다. 칼뱅은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낳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 "죽은 그루터기"와 같았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17) Calvin, 『설교』, 30.

18) Calvin, 『설교』, 33.

19) 김영한, "한국교회의 칼빈주의 수용: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7(2010), 50. 김영한은 박형룡, 박윤선, 이종윤이 칼뱅의 예정론을 신존재론에 기초함으로써 사변적이며 숙명론적 경향을 피할 수 없었던 반면, 프레드 클로스터, 헨리 반틸, 신복윤 등은 목회적 관점에서 칼뱅의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224.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회적 관심사였다." 김영한, "한국교회의 칼빈주의 수용," 62에서 재인용.

20) 이경직,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개념," 「기독교철학」 15(2012), 92f. 칼뱅 당시 가톨릭에서의 믿음은 "암묵적 신앙"(implicit faith)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이며 지성적 인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교회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Calvin, 『강요』 III, 2:3). 칼뱅에게 믿음의 대상은 추상적인 진리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21) Calvin, 『설교』, 32.

믿음이 항상 거기에 연결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그리스도 신앙에 철저하기를 권면한다.[22)]

> 우리는 우리 자신 없이 선택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될는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23)]

칼뱅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서 이제 20년 만에 잉태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주목한다. 한 뱃속에 있기에 전혀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형보다 아우를 선택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칼뱅은 "이것은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고 이성적으로 해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자신의 자유를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4)] 칼뱅이 이러한 성서해석을 내놓은 배경에는 그가 아무리 궁구해도 알 수 없는 현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실의 한쪽에는 "교황주의자들과 이교도들처럼" 아무런 교리도 없이 불쌍하게 눈먼 채로 "하나님께 대적"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산 자가 되고 끝까지 그 안에 보존" 하여 비췸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다. 칼뱅은 묻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였음에도 이런 대립적인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나 칼뱅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칼뱅 반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둘로 나뉘는 현실은 사람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인간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라 대답한다.[25)] 칼뱅은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 넘는" 축복과 저주의 현실을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적 선택의 결과라고만 돌려도 되는가?[26)]

---

22) Calvin, 『설교』, 42, 46.
23) Calvin, 『설교』, 81.
24) Calvin, 『설교』, 54.
25) Calvin, 『설교』, 75.
26) Calvin, 『설교』, 82.

여기에서 칼뱅은 그의 결정적인 예정사상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총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다.[27]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할지라도 한 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다른 편은 그렇지 않게" 된다. 왜 그런가? 결국 믿음은 "구원으로 예정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한 혈통은 그것에서 유익을 얻고 적절한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혈통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말하기를(행 13:48)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28]

이처럼 칼뱅에게 믿음의 '출처'는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은총"이며, "우리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온다.[29]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 진 너희 모든 자들은 오라"(요 6:44)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모두 오라할 때는 언제고, 그런데 선택된 자가 아니면 올 수 없다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는가?[30] 이때 칼뱅 반대자들은 다시 곧바로 자유의지의 필연성을 제시하지만, 자유의지로써 '선택에 의한 믿음'을 대치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성서가 요구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칼뱅주의"는 '회개'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31]

무엇보다도 칼뱅의 이중예정론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유기'(遺

---

27) Calvin, 『설교』, 82.
28) Calvin, 『설교』, 85.
29) Calvin, 『설교』, 86. 87.
30) Calvin, 『설교』, 88.
31) 김홍만, "존 웨슬리가 본 칼빈주의," 「한국개혁신학」 32(2011), 22.

棄, reprobation)를 논하는 영역이다.[32] 특히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자손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고,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택하신 일련의 선택 행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 있다고 칼뱅은 말한다.[33]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은혜와 자비로써 선택하였음에도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들을 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 전체에서 택함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집에서 그의 친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불신앙으로 대하며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4]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칼뱅이 논증하는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거룩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로서 언약의 계승자들"이었고 "거룩한 뿌리의 가지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그의 후예들은 "이중으로 배은망덕하며, 또한 그 이중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였다는 것이다.[35]

"아브라함의 손으로 양자됨이 이루어졌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썩은 지체로 간주되어 떨어져" 나갔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보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야" 확실해진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도저히 나누어지지 않는 끈으로 그 자신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

32) 이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131. 이중예정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자는 아우구스티누스다: "어떤 이는 영광으로, 다른 어떤 이는 형벌로 예정되었다."

33)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Ross Mackenzie (Grand Rapids: Eerdmans, 1960), 198.

34) Calvin/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최종판),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III, xxi:6, 521. 이하 『강요』.

35) Calvin, 『강요』 III, xxi:6, 522.

다."[36] 이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칼뱅의 결론이다.

2. 선택과 유기의 신학적 의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다!

칼뱅의 '이중예정'(Predestinatio Gemina) 교리의 요지는 『기독교강요』(1559) 제3권 21장의 제목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으로 어떤 자는 구원으로, 어떤 자는 멸망으로 예정하였다"는 것이다.[37] 칼뱅은 이 주장으로 인해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즉시" 생겨날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할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이 이 교리를 오히려 강력히 주장했던 이유는 이 교리가 지니는 "유용성"과 "심히 향기로운 열매"가 지대하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과제는 칼뱅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그 "유용성"과 "심히 향기로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불합리하고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38]

칼뱅이 이중예정론을 제시했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진정한 겸손"을 찾도록 함과,[39]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참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공해 줌에 있었다.[40] 칼뱅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거절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기원

---

36) Calvin, 『강요』 III, xxi:6, 522.

37) 필자는 영한 대조로 되어 있는 성문사판 『영한 기독교강요』(제3권, 편집부 번역, 서울: 성문출판사, 1990)의 원본으로 사용한 웨스트민터 출판사의 영문판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3, ed. John T. McNeill, trans & indexed by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III, xxi:1, 774. 이하는 『강요』.

38) Calvin, 『강요』 III, xxi:1, 777.

39) Calvin, 『강요』 III, xxi:1, 777.

40) Calvin, 『강요』 III, xxi:1, 779.

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임이 강조된다. 이처럼 선택과 거절이라는 "대조"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더욱 빛나 보인다.[41]

이러한 구원은 "사람의 행위를 일체 무시하고, 자비의 마음속에서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며, 왜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때 칼뱅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그 택함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롬 11:5-6)을 분명히 지지함으로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로 인함이 아님'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42]

그러나 칼뱅은 예정교리 연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인간의 논리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며, 칼뱅 자신도 그에 대해 제기하는 '모든' 질문에 다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논의의 바른 방향은 그것의 논리적 정합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신학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칼뱅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칼뱅이 이중예정론을 전개하려 했던 진가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진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

4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거절은 선택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칼뱅은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했지, 먼저 멸망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제외된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을 말하는 순간부터 논리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거절된 자를 말하게 된 것이다.

42) Francis Turretin,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IV. xiii.4, 재인용 R.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Books, 1985), 293. "참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택받았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받았다"(Quisquis vere credit et resipiscit electus sit; Atqui ego credo, etc; Ergo electus sum).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2001), 61에서 재인용.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성서적 진리를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제수잇파 펠라기우스주의자인 몰리나(L. Molina, 1536-1600)와 같은 학자들의 주도하에 "순수한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배격한 반면에, 펠라기우스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차츰 관대하게" 나갔던 가톨릭교회의 공로사상과 치열하게 싸웠던 교의신학적 무기였다.[43] 칼뱅은 펠라기우스적으로 기울고 있었던 당시의 신학적 흐름에서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회복함으로써 은혜로 말미암는 성서적 구원관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였다.[44]

칼뱅이 가톨릭의 공로사상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당시 가톨릭에 회자되고 있었던 예지예정론이 있었다. 칼뱅의 예정 사상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지'하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다시 말하여, 예지가 예정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예정과 예지 중 어느 한 쪽을 다른 한 쪽에 "종속"(subjecting) 시키는 것, 즉 서로를 인과관계로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45]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지했기 때문에 어떤 자는 영생으로 선택되고, 어떤 자는 멸망으로 유기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원칙에 따라 칼뱅은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귀결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응대한다.[46]

---

43) J. L. Neve/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40. 참조, Luis de Molina, *Liberi Arbitrii cum Gratiae Donis, Divina Praescientia, Providentia, Praedestinatione et Reprobatione Concordia* (Olyssipone: Apud Antonium Riberium, 1588). 이중에서 제4장이 영역됨. *On Divine Foreknowledge*: Part IV of the Concordia, trans. with an intro. & notes by Alfred J. Freddoso (Ithaca/London: Cornell Univ. Press, 1988).

44) 한성진,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 연구," 「역사신학논총」 8(2004), 47. 칼뱅은 크리소스톰을 가장 위대한 주석가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부른다. 이 글 52쪽.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뱅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교부였다.

45) Calvin, 『강요』 III, xxi:5, 517. "우리 반대자들, 특히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온갖 사소한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예지와 예정의 두 가지 교리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나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성문'에서는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원광연'의 번역이 본문에 충실하다("We, indeed, place both doctrines in God, but we say that subjecting *one* to the *other* is absurd."; trans by F. L. Battles, 이탤릭체는 필자의 강조).

46) J. L. Neve, 『기독교교리사』, 641. 몰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과 인간의 자유 의

그렇다면 칼뱅은 왜 예지에 의한 예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 물음은 웨슬리의 예지예정론을 논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칼뱅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에 대한 예지냐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앞에 기초해서 예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과 우주 안의 "모든 일"이며,[47] 특히 "각 사람의 공로"에 대한 예지다.[48] 예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모든 과거와 미래적 일들을 현재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예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지로 알게 된 개개인의 선악 간의 모든 '행위'들에 기초해서 인간의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는 것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정이 예지에 근거하게 될 때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미래에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에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선택하고,[49] 다른 한편,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유기해 버리는 결정을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50] 이것은 인간이 행한 선한 공로의 여부로 구원과 멸망이 정해지는 것인 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로주의 구원론은 칼뱅이 일생 동안 강력히 저항해왔던 신학적 논점이다. 이것이 예지가 예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칼뱅신학의 요점이다.[51]

지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는 전자의 근거를 하나님의 예지에 두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예정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의지가 취할 태도를 확실히 예견하실 수 있는 특수한 지식(scientia media)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47) Calvin, 『강요』 III, xxi:5, 787. "우리가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 그리고 이 예지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고딕체는 필자의 강조).

48) Calvin, 『강요』 III, xxi:1, 799.

49) Calvin, 『강요』 III, xxi:1, 799.

50) Calvin, 『강요』 III, xxi:1, 799.

51)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201. 칼뱅은 로마서 9:11-12를 해석하면서 인간의 공로(merits)나 가치(worthiness)는 하나님의 선택 행위에 전혀 고려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칼뱅은 하나님의 예정을 논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선택론을 다룬다. 하나는 "그리스도"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선택이다. 칼뱅이 이 선택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된 것은 그의 의로운 생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신 선택"임을 강조한다.[52]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도 그들의 공로 여부에 대한 '예지'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선택의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거나 어떤 외적 조건이 좋아서인가? 아니다. 행위로 보면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오히려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고 그들의 거룩한 조상조차도 그런 큰 영예를 얻을 만한 높은 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만 너희(이스라엘)를 사랑하심"(신 4:37) 때문이었다.[53]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이 놀랍도록 너그러우시며 끊임없이 계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사 41:9; 슥 2:12).[54] 한 마디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주권에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행한 어떠한 종류의 공로에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칼뱅은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칼뱅의 선택과 유기 사상이 성결교/감리교의 웨슬리안들에게 그 신학적 정합성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의혹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예정의 교리가 꺾이지 않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 특히 한국장로교에 여전히 중요한 신조로 고백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웨슬리안이 볼 때 칼뱅의 이중예정론이 지니는 "심각하고도 곤란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

만"이 선택의 이유가 된다고 해석한다.

52) Calvin, 『강요』 III, xxi:1, 801. 칼뱅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나 나귀가 아니라 사람이 된 이유를 말하게 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로 만드실 권능도 있었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53) Calvin, 『강요』 III, xxi:5, 791. 칼뱅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성서의 여러 곳을 인용하고 있다(신 10:14-15; 23:5; 시 47:4).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일의 감사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 말할 때 감사와 소망의 원인을 하나님 자신과 그의 언약에서 찾을 수 있었다(시 105:6)고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시 44:3; 100:3).

54) Calvin, 『강요』 III, xxi:6, 793.

러한 문제들보다 이중예정론이 언약신학에 뿌리를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자유'라는 불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 가치는 여타의 모든 비판을 상쇄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톨릭의 공로주의와 재세례파의 열광주의에 대항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칼뱅 이후, 존 웨슬리는 이중예정론을 강력히 비판했던 알미니우스(Jacobus Arminius)의 정신을 왜 18세기 당대에 다시 살리고자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연구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평생 계속해서" 예정론과 관련하여 논쟁했던 대상은 당시의 "하이퍼 칼뱅주의"였지, 칼뱅 자신의 성서적 예정론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55] 이제 웨슬리가 영국 칼뱅주의자들의 이중예정론에 대해 불같이 토해내었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II. 존 웨슬리의 예지예정론: 조건적 선택과 유기

페이든의 "신 비교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56] 당시의 영국 국교회와 신학계의 상황은 한 마디로, 로마가톨릭의 전통과 개신교 칼뱅주의적 개혁신학이 혼재한 상태였다.[57] 뿐만 아니라, 18세기 유럽 신학은 전반적으로

---

55) 박창훈, "존 웨슬리와 존 플렛처의 성결론," 「역사신학논총」 8 (2004), 101. 박창훈은 스티븐 군터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W. Stephen Gunter, *The Limits of 'Love Divine': John Wesley's Response to Antinomianism and Enthusiasm* (Nashville: Kingswood, 1989), 237-243.

56) Paden, *El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6. 우리와 같이 특정 교리를 비교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페이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세속적, 비신학적 비교"(secular, non-theological comparativism)인데, 이때 "종교적 자료[우리로서는 신학적 교리]"(religious data) 자체의 분석을 통해 종교적 근본 실재를 드러내려 하기 전에, 종교인의 "행위 양식"(type of human activity)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칼뱅과 웨슬리가 자신들의 예정론을 전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예정 교리의 바른 신학적 의의를 밝혀내는 일이다.

57) 영국교회의 신학적 특성은 1559년의 '기도서'와 1563년에 나온 '39개 신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개신교 정통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은 흐름 하에서 교회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고, 사회는 전통문화의 붕괴와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걷잡을 수 없는 윤리적 타락의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때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는 "성서적 성결"(Biblical Holiness)과 "기독자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서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생 동안 이의 전개를 위해 헌신한다.

이처럼 웨슬리는 성결의 삶과 성결신학을 추구해 나가고 있을 때, 이를 위협하는 신학적 도전들과 대면해야 했다. 특별히 가톨릭의 '공로주의'와 하이퍼 칼뱅주의의 '율법무용론'(Antinomianism)이 웨슬리가 부딪혀야 했던 커다란 문제들이었다.[58] 웨슬리는 이들과 논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로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총의 신학'을, 다른 한편에서는 칼뱅주의와 대항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을 형성해가야 했다.[59] 또한, 사회적으로는 윤리적 타락에 젖어 있던 영국사회를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복음 증거와 성결운동을 전개하였고,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성결한 삶을 촉구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의 실천에 앞장섰다. 이러한 웨슬리의 신학적, 윤리적 삶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비판했던 사상이 무엇

---

58) 596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세(540-604)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수도사 40명을 영국에 파견한 이후 로마가톨릭에 의해 정치와 종교 모든 면에서 지배받고 있던 영국이 헨리 8세(1491-1547) 때에 이르러 의회를 소집하여 1534년 국왕지상법(國王至上法) 을 발표한 데 이어, 1536년 로마의 감독권을 폐지하는 법령을 발포함으로써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가톨릭으로부터의 교회개혁은 대주교 크랜머에 의해 프로테스탄트적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크랜머는 1549년 성서적 요소를 회복시킨 공동기도서를 만들었다. 1553년 여왕 메리 1세(1553-1558)가 로마가톨릭으로 복귀했으나, 여왕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즉위 후 종교개혁의 정착기를 맞이하였다. 1559년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포용하는 기도서를 제정하고 1563년 중용 노선을 추구하는 39개 신조를 발표하여 가톨릭적이며 개혁적인 성공회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1570년 교황 비오 5세가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하자 성공회는 로마교회와 완전히 갈라섰다.

59) 참조, Allan Coppedge, *John Wesley in Theological Debate* (Wilmore: Wesley Heritage Press, 1987), 51-84쪽에서 카피지는 1740년에 웨슬리가 예정론으로 부딪혔던 윌리엄 시워드(William Seward), 하우웰 헤리스(Howel Harris), 존 세닉(John Cennick), 및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의 논쟁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보다 칼뱅주의의 이중예정론이었다.

1. 웨슬리의 칼뱅주의 이중예정론 비판

이중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직접적 비판은 영국교회의 찬송시 작가였던 톱레이디(Augustus Toplady, 1740-1778)와[60] 당시 부흥운동 동료였던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 뿐만 아니라, 존 길(John Gill, 1697-1771)의 극단적 예정사상을 겨냥한 것이었다.[61] 웨슬리가 18세기 영국 상황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들의 예정론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6세기 칼뱅 자신의 이중예정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라도, 웨슬리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마치 매우 파괴력 큰 무기와 같은 이중예정론을 사용하는 그들의 태도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톱레이디나 휫필드에 대한 웨슬리의 비판적

---

60) L. Tyerman, *The Life and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Founder of the Methodists*, vol. 3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 1872), 54. 웨슬리는 당시 톱레이디와 같은 극단적인 칼뱅주의자들과 논쟁적인 글쓰기를 꺼려했으며,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다; 웨슬리는 톱레이디와의 신학적 논쟁은 월터 셀론(Walter Sellon)과 같은 학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What is an Arminian?"이란 글을 통해서 칼뱅주의자와 알미니우스주의자 간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면서 서로 간에 "칼뱅주의자" 혹은 "알미니우스주의자"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양측 설교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Ibid.*, 81). 당시의 칼뱅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136-144쪽을 참고하라. Coppedge, *ibid.*, 175-190쪽에서 톱레이디와 웨슬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 예정론에 대하여 논쟁한 내용을 참고하라.

61) L. Tyerman, *The Life and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Founder of the Methodists*, vol. 2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 1872), 148f. 웨슬리가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1752)를 출판했을 때 예정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웨슬리를 반박하려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같은 해에 "극단적 칼뱅주의자"(ultra Calvinist)였던 사우스와크(Southwark)의 침례교 목사 존 길 박사가 두 편의 팸플릿을 출간했다. (1) "The Doctrine of the Saint's Final Perseverance, asserted and vindicated. In answer to a late pamphlet, called Serious Thoughts on the subject." (2)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stated and set in the Scripture light; in opposition to Mr. Wesley's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With a reply to the exceptions of the said writer to the Doctrine 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웨슬리는 이에 존 길의 반박에 대해 1754년에 "An Answer to all which the Rev. Dr. Gill has printed on the Final Perseverance of the Saints"로 응대하였다. Tyerman, vol. 2, 191.

글들을 통해 그가 문제시하였던 논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62]

휫필드의 예정론에 대한 비판은 웨슬리가 36세였던 1739년에 행한 그의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총"(Free Grace)과[63] 극단적인 예정론에 대한 비판은 1752년에 쓴 논문 "예정에 대한 차분한 고찰"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64] 여기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자를 위한 것으로 모든 자에게 주어졌으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이 명제(命題)는 칼뱅주의와 관련해 크게 웨슬리의 두 가지 신학적 입장의 근거가 된다.

첫째는 칼뱅주의와 일치하는 점으로, 구원이란 "사람에게 있는 여하한 능력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즉, 구원은 "어떤 식으로든 은총을 받는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가 이룩한 어떤 것이나 그의 사람됨에 달린 것도 아니다." 사람의 공로, 선행, 의로움, 업적, 인격 등은 "은총의 원천"이 아니라 다만 그 결과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다.[65]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사건이라는 이와 같은 사실에는 칼뱅주의 전통과 웨슬리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정확히 일치한다.

둘째는 칼뱅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

62) 박창훈, 『존 웨슬리, 역사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92-93. 웨슬리가 예정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른 학자들의 책을 요약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과 같다: (1) "Serious Considerations Concerning the Doctrines of Election and Reprobation": 이 글은 Isaac Watts, *The Ruin and Recovery of Mankind* (1740)를 요약한 것, (2) "Serious Considerations on Absolute Predestination": 이 글은 Robert Barklay, *An 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 (1741)를 요약한 것이다. 웨슬리 자신이 예정론에 관하여 쓴 글은 3가지로 다음과 같다. (1) *Scripture Doctrine Concerning Predestination, Election, and Reprobation* (1741), (2)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1752), (3) "A Dialogue between a Predestinarian and His Friend".

63) John Wesley, "값없이 주시는 은총"(Free Grace), 『웨슬리 설교전집』 제4권,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37-265. 이하 FG로 표기함.

64) John Wesley,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 Letters, Essays, Dialogs and Address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872): 204-259. 이하 PCC로 표기함.

65) Wesley, FG, 239.

은 구원 받을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칼뱅주의 입장인 반면,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웨슬리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양자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분기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있었다.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왜, 어떤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가?' 이러한 '현상적 경험'에서 나온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양자는 갈리게 된다. 칼뱅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반면,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으나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부에 의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웨슬리의 입장이 나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웨슬리는 보편적 은총론에 인간의 자유의지론으로, 칼뱅주의는 제한적 은총론으로 대답한 것이다.

부흥운동을 위해서 웨슬리는 칼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휫필드와 가능한 한 신학적 문제로 긴장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있었지만, 제한적 은총론에 입각한 예정론에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란 설교를 통해서 예정론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밝혔다.

예정론에 대한 이와 같은 18세기 웨슬리의 이해는 내용적으로 16세기 칼뱅의 근본 주장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원과 저주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 하에 있으며, 그 작정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으며, 그 작정은 변개(變改)치 못한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교리가 지니는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의의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논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웨슬리의 예정론 비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설교 무용론,[66] (2) 성결촉진 소멸론,[67] (3) 성령사역 훼방하는 사변적 신앙론,[68] (4) 율법 무용론,[69] (5) 기독

66) Wesley, FG, 242.
67) Wesley, FG, 243.
68) Wesley, FG, 246. 필자의 강조.
69) Wesley, FG, 247.

교의 계시 전복,[70] (6) 신성모독 등과 같다.[71]

이상의 예정론 비판을 통해서 웨슬리는 당대에 회자하던 칼뱅주의적 신관과 구원관의 부적합성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웨슬리의 논객이었던 휫필드와 톱레이디의 예정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72]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로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을 수호하고자" 그들의 예정론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밝힌다.[73] 칼뱅주의 예정론에 대한 이와 같은 웨슬리의 통렬한 비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중예정론자들과 웨슬리안들은 상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웨슬리의 예지예정론

칼뱅주의의 예정론을 이처럼 비판하는 웨슬리에게는 예정 사상은 없는가? 있다! "과거에 있는 일이요, 창세전에 일어난 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decree)에 대한 믿음은 웨슬리에게 명확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어떠한 예정론을 주장하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예지예정론이다.[74]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정하신 하나님이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롬 8:29) 작정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예지하시고 예정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웨슬리는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웨슬리의 예지예정론이라 부른다면, 이 예지예정론은 "모든 선한 행실과 모든 성결함에 부요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 주며, "기쁨과 행복의 원

70) Wesley, FG, 249. 웨슬리는 몇 가지 예증을 제시한다: 로마서 9:15("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에 대해서 시편 145:9("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가 상충된다. 로마서 9:11-12, 16이 베드로전서 1:2나 로마서 8:29와 충돌을 일으킨다.

71) Wesley, FG, 252f.

72) Wesley, FG, 247.

73) Wesley, FG, 252. 웨슬리의 설교에 논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74) 웨슬리의 예정론을 '예지예정론'이라 정의한 웨슬리 학자가 있는지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천"이며, "다함이 없는 커다란 위로"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완전함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을 가장 고결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주며, "기독교 계시의 모든 부분"과 일치한다고 웨슬리 자신은 확신한다.[75]

웨슬리의 예지예정론은 톱레이디와의 논쟁 이후 더욱 분명해진다. 톱레이디가 자신을 칼뱅주의자가 되게 한 이탈리아 출신 장키우스(J. Zanchius, 1516-1590)의 책을 1769년에 『절대 예정론』이란 새로운 제목으로 출간한 것을 기점으로 웨슬리와 톱레이디 사이에 뜨거운 신학 논쟁이 벌어졌다.[76]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는 1773년에 로마서 8:29-30을 본문으로 한 "예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예지예정론'을 전개하였다.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예지(豫知, foreknowledge)하심이란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시작에서부터 만물이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누가 믿을 사람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다.[77] 이때 미리 안다는 '예지'는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임을 웨슬리는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는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는 예지거나 후지가 중요한 이슈가 안 된다는 말이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태도와 자세"만이 예지의 대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예지로써 "각 세대와 나라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단번에 아신다." 그러나 인간이 믿거나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인간의

---

75) Wesley, FG, 257.

76) Jerom Zanchius,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Stated and Asserted*, added with A Letter to the Rev. John Wesley, trans. Augustus Toplady (New York: George Lindsay, 1811). 이 책의 원명은 *Confess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1562*)이었다. 이 책으로 인해 톱레이디와 웨슬리는 영국교회의 신학적 입장이 칼뱅주의인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인지에 대해 격한 토론을 붙게 된다. 장키우스는 이 책 외에도 초대교회로부터, 캔터베리 대주교로 비국교도를 탄압하여 청교도 혁명을 유발케 한 윌리엄 로드(William Laud, 1573-1645)까지의 예정론을 훑었고, 칼뱅주의의 5개 신조와 도르트 회의의 내용까지 총 700쪽이나 되는 대작 *The Historic Proof of the Doctrinal Calvinism of the Church of England* (1774)을 출판함으로써 영국교회는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가 아닌, 칼뱅주의(Calvinism) 교리에 입각한 교회임을 주창하였다.

77) John Wesley, "예정에 대하여"(On Predestination), 『웨슬리 설교전집』 제4권, 286 (필자의 강조). 이하 OP로 표기함.

자유에 맡겨져 있다. 인간의 신앙 여부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웨슬리의 예지예정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웨슬리의 통찰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게 될 자들과 믿지 않을 자들을 단번에 미리 알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 받을 자들로 예정하였다. 이러한 예지예정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적이어서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누가 믿음 안에 끝까지 남아 있을 지의 여부를 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예지예정은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는,"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구원받기로 예지예정 된 자는 "외적으로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분의 성령에 따라서"(행 14:3; 20:32; 롬 1:7; 고전 1:2)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다.[78]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 들어온 자들을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하시고(롬 3:24),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골 1:12) 만들어, "세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나라"(마 25:34)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 자녀들에게 주신다.[79]

이즈음에서 중요한 물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가?'이다. 즉,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인가, 아니면 후인가? 그것은 부름받기 전이어야 한다. 웨슬리는 로마서 8:28, 에베소서 1:11과 디모데후서 1:9에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 계획과 뜻에 의해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요 17:24; 엡 1:4; 벧전 1:20)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가톨릭의 "지성적 동의"로서의 믿음,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이 다만 교회에 대한 존중으로 정의된 믿음은—칼뱅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웨슬리에게도 비판적인바—은총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소위 '공로'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지예정은 그들의 행위로서의 믿음과 무관한 것이 된다.[80] 믿음으로 응답하기 전에 불렀기 때문이다.

---

78) Welsey, OP, 288.

79) Wesley, OP, 289.

80) 이경직,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개념," 「기독교철학」 15(2012), 94.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예지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즉, 예지하고 예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려고 하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지예정이란 말을 결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지예정은 신적 차원의 일이다. 그렇기에 이 말을 인간적 차원에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는 순간 예지예정의 신적 차원은 더 이상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지예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웨슬리의 지적이다.[81]

이러한 웨슬리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하여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말하라 한다면, 그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은총과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예지함으로써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예정하는 하나님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 여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파악된다. 인생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종말의 신앙 상태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 상태인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과거나 미래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늘 현재인 이유는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인생은 늘 한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인간에게 하루살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인간의 하루라는 현재 안에서 다 파악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지금처럼 계속 믿음 가운데 있을지, 혹은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있을지 그 여부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지하고 섭리한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예지예정은 숙명론적인 사변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보여주며, 신앙의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신적 작정을 말하며, 동시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부름에 자율적으로 응답하는 자유를 부여한다.[82]

---

81) Wesley, OP, 292.

82) 비교, Randy Maddox,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92. 웨슬리의 인간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본래적 능력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능력(God's gracious empowering)이 먼저라는 사실에 강조점이 주어졌고, 그 다음으로 인간의 응답이 따

이상의 것을 웨슬리의 말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님의 예지예정은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믿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지예정은 "단 한 번의 영원한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지예정의 하나님은 믿음을 결단하는 인간의 현재와 만나는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지예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기계적 운명론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따로 없고 모든 것이 똑같이 그 앞에는 현재뿐"이기 때문이다.[83] 따라서 다음의 두 사실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줌으로써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에 따라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신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지로써 알고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믿지 않음으로 멸망 받을 자인지를 예지 예정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지예정의 순간은 "영원한 현재"로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III. 칼뱅과 웨슬리의 예정론 교차비교와 신학적 의의 평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칼뱅 이후 그의 예정론에 대하여 대립적 입장을 보여 왔던 자들 가운데 웨슬리의 관점을 칼뱅 자신과 직접 비교하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양자가 지니는 시공간적 맥락의 특수성과, "인과적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84] 왜냐하면 분석단위들—예정, 예지, 선택, 유기, 작정, 자유의지, 구원 등—이 개념적 유사성은 공유하고 있으나 시공간적 맥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닥스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책임적 은총"(responsible grace)이라 명명하고 있다.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를 다룬 보론을 참조하라(*ibid.*, 55-58). 참조, 김성원, 『웨슬리안 성결신학』 (서울: 도서출판 물가에심은나무, 2011), 127-154쪽에서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에 대해 Randy Maddox, Kenneth Collins, Kenneth Grider 등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칼뱅주의 예정론과의 대화 가능성은 소극적으로만 열어놓고 있다. 특히 136쪽 이하.

83) Wesley, OP, 292.

84) Charles C. Ragin/이재은 외 옮김, 『비교방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2), 43f.

를 사용하는 주체들 간의 사상적 평가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85] 칼뱅은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배경으로 이미 개혁교회 내에 들어온 성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요, 웨슬리는 18세기 개신교 영국교회 밖에서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은 이들의 교리적 주장들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칼뱅과 웨슬리의 '예정론'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신학적 기능을 나타내는 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반(反) 공로주의 사상

칼뱅과 웨슬리 모두 예정론을 통해 거부하고자 했던 것은 공로주의였다. 특히 양자는 공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공로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그 핵심은 '예지'와 관련된다. 즉 칼뱅은 예지에 의한 예정을 반대함으로써, 반면에 웨슬리는 예지에 의한 예정을 주장함으로써 공로주의 사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논리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공히 '인간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양자는 예지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미 앞에서도 밝혔듯이, '무엇'에 대한 예지를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칼뱅은 공로에 의한 선택을 주장하는 교황주의에 대항하여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속한다"고 못박는다.[86] 여기에서 예지는 결국 예정의 근거를 인간의 공로에 두는 것으

85) 안재홍,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46/2(2006. 6), 31-56.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비교방법은 복잡성과 일반성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서는 비교 사례연구와 통계방법을 통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하고 있는 단순비교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공간적 맥락의 특수성'을 찾아내어 비교 대상 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원리만을 차용한다.

86) Calvin, 『강요』 III, xxii:1, 799. 필자의 강조; 바울이 "창세 전에"(엡 1:4) 선택되었다고 언급한 내용 역시 "공로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xxii:2, 803).

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칼뱅의 반대는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된다.[87] 그러므로 칼뱅은 예지에 의한 예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로"에 대한 예지에 입각한 예정을 반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웨슬리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지를 말했는데, "믿음"에 대한 예지를 말함으로써 공로에 대한 예지를 거부한 칼뱅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교의를 세운 셈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왜 칼뱅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예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칼뱅이 믿음의 예지예정을 거부했던 이유는, "믿음은 선택의 역사이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88] 다시 말해서 선택은 믿음에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거부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칼뱅이 당시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입장을 위험시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보는 로마 가톨릭 저술가들의 입장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놓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둘째는 "믿음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선택은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루터파, 특히 멜랑히톤의 입장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89]

칼뱅은 당시의 상황에서 이상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가 믿음을 선택에 앞세울 수 없었던 것은 언뜻 보기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 입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허무는 인본주의적 신앙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믿음으로 확증되기까지는 선택이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되며, "선택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며 선택의 타당성이 복음을 받아드리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90] 한 마디로, 칼뱅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일이요, 선택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91]

---

87) Calvin, 『강요』 III, xxii:9, 821.

88) Calvin, 『강요』 III, xxiv:3, 869.

89) Calvin, 『강요』 III, xxiv:3, 871.

90) Calvin, 『강요』 III, xxiv:3, 574.

91) 이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칼뱅이 "하나님에게 일관되게 의존적인 언약의 편무적

이에 대해 부연(敷衍)하자면, 칼뱅은 당시 교황주의자들과 가톨릭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던 믿음 개념의 순수성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의지"가 강조되는 "믿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자체"를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 행위가 인간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先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것은 마치 교만과 거짓된 자랑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자기들의 결정에 의존시키려고" 했던 방식으로, 교황주의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자기들을 "교회"라고 주장하는 식의 신학적 오류가 극도로 번져 있었다고 본 칼뱅의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92] 가톨릭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황주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더 이상 순수한 신적 믿음일 수 없고, 오히려 인간적 전통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로'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의 근거로 삼게 되는 믿음의 예지를 말하는 것은 거부해야 했다.

그러나 웨슬리의 경우는 달랐다. 칼뱅이 예정론을 전개하였던 상황은 가톨릭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교회 중심의 목회적 현실이었지만, 웨슬리는 그와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여 결신케 하는 전도의 선교현장에서 예정론을 말하였다. 이는 마치 바울이 이미 유대교 안에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오다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된 유대-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이방-그리스도인에게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칼뱅과 웨슬리의 경우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했다고 보인다.

18세기 영국의 상황에서 가톨릭 신앙이 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을지라도 이미 영국 국교회는 칼뱅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때, 웨슬리는 칼뱅주의자들과 신학 논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예지를 적극적

행위(God's unilateral action)를 강조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값없이 주시는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칼뱅 당시 1550년대에 필립 멜랑히톤(1497-1560)이 믿음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조건이라 보았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여겨지는 믿음은 "은혜 안에 포괄적으로 수용되어진다"(참조: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488).

92) Calvin, 『강요』 III, xxii:4, 807.

으로 말할 수 있었고 또한 말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믿음의 선후 관계에서 선택을 믿음에 선행시켜야 했던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와는 달리, 웨슬리의 문제제기는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교리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던 신학적 상황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웨슬리도 웨슬리식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예정 교리를 믿고 있었다. 선택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유기가 있고, 유기가 있다면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웨슬리 역시 부인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93]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예지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었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은 인간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예정한 사실은 인간이 이 사실을 믿고 안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불변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고유의 작정(decree)이라는 점을 칼뱅은 부정할 이유가 없다. 믿음에 대한 예지를 통해서이든, 공로에 대한 예지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이든 웨슬리와 칼뱅의 예정론은 교차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로서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며, 이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성서의 사상을 서로 다른 시대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주권 사상

웨슬리가 칼뱅의 이중예정론을 비판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래디컬한 것은 그것이 "신성모독적"이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중예정론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선자"요, "백성을 속이는 자"요, "신실함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토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웨슬리에 따르

93) Wesley, PCC, 207.

면 이중예정론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 듯" 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예정의 교리는 멸망할 자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였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전복시켜" 버리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94]

주지하다시피, 이중예정론은 칼뱅이 제네바에서 목회자로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들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입김"에 불과한 자들, 곧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95] 칼뱅 당시의 이러한 교회 문화적 상황에서 그가 주창한 이중예정론이 지니는 목회 신학적 의의는 양면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 면은 믿는 자의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 완전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 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믿지 않거나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당할 멸망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르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엄위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칼뱅의 이중예정론이 이 정도의 목회 신학적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머물러버린다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들을 생각할 때 이중예정론의 신학적 가치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칼뱅의 이중예정론을 그 자신이 처음부터 견지해온 기독론적 틀에서 조명할 때 신성모독적으로 보게 하는 논리적 취약성이 보강될 수 있다. 칼뱅의 선택과 유기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저주에 처하도록 유기했다면 그것의 결정적인 예는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받을 자로 선택했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96] 칼뱅에 따르면, 유기의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죽을 인간

---

94) Wesley, FG, 252f.

95) Jean Calvin, *Christliche Unterweisung der Genfer Katechismus von 1537* (Furchvorlag, 1963), 29; 유태주, "예정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26쪽에서 재인용: "동일한 택정에 의하여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저 신적인 진리를 아무리 소리 높여 설교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설교하여도 다만 죽음의 입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

96) Calvin, 『강요』 III, xxii:1, 799.

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며, 선택의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선택되셨다는 것이다.[97] 이와 같은 원리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게 된다.

둘째는 선택의 확신이 믿는 자의 불완전한 믿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다. 칼뱅도 신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되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킬 때에 사용하는 가장 극심하고 위험한 유혹"이라 지적한다.[98] 선택의 목적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99]

이처럼 선택과 유기라는 칼뱅의 이중예정론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 듯" 보게 한다는 이중예정론은 "신성 모독적"이라 말하는 웨슬리의 비판은 유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영광 받으심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위한 믿음의 근거와 유기를 위한 불신앙의 근거는 아예 없었겠기 때문이다. 신자의 구원의 근거를 칼뱅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던 공로주의적 구원관을 허물어버리고 철저하게 신중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모든 근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작정에 둠으로써 인간적 공로의 논리가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신자의 믿음 상태 여하에 따라 선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칼뱅의 예정론이 신성모독적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교의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웨슬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 영혼이 믿음으로 돌아서고 안돌아서고 하는 문제를 개개인의 숙명적인 결단에만 맡겨놓고 마는 냉엄한 법적 차원의

97) Calvin, 『강요』 III, xxiv:5, 875, xxiv:6, 877.
98) Calvin, 『강요』 III, xxiv:4, 575.
99) Calvin, 『강요』 III, xxiv:5, 577.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만 하는 그런 정적인 원리이거나 혹은 신자들의 선택에 확신을 주기 위해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존재, 즉 구원과 심판의 주체로서 개인적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객관적 존재로 설정된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당시의 칼뱅주의적 이중예정론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칼뱅의 무조건적 예정과 웨슬리의 조건적 예정의 접점

칼뱅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 예정론을 거침없이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칼뱅신학의 과제는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에 따르는 무조건적인 유기가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실제화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주의의 하나님 주도적인 언약신학의 전통 하에서 하나님은 늘 "갑"(甲)이 되고, 인간은 언제나 "을"(乙)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구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루터주의와 칼뱅주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한 웨슬리의 진지한 성서적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100] 칼뱅은 교회 현장에서 경험한 구원의 문

---

100) 참조, 한철하,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3. 한철하는 칼빈주의 신학과 웨슬리주의를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대비시키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이라 비판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칼빈 신학이 구원 중심의 신학이란 사실을 볼 때 웨슬리주의 구원 운동을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웨슬리 운동의 중심 신앙을 칼빈에게서 볼 수 있다. 웨슬리 운동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둘째, 구원에 대한 열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칼빈의 중심 신앙과 다를 바 없다. 그 구체적인 운동 방법인 '성화' 운동도 그 기초를 칼빈의 신자의 '행위의 의'(works righteousness)에 대한 가르침(『기독교강요』 III, 17:6-10)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그와 같은 대비가 잘못된 것이란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에 답하기 위하여 그의 신중심적 관점에 따라[101] 하나님의 편에서－소위 "위로부터" 연역적으로－사유함으로써 신적 선택과 유기의 '무조건성'을 지지할 수 있는 성서의 구절들에 주목하였다면, 웨슬리는 당시 "하이퍼 칼뱅주의"의 극단적 입장을 반박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인간의 편에서－소위 "아래로부터" 귀납적으로－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조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02] 그렇다면 웨슬리와 칼뱅은 성서적 구원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칼뱅이 하나님의 편에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조건을 달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자로 여기는 것이며 그밖에 있는 자는 무조건 유기자로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 웨슬리가 인간 편에서 구원은 "조건적"이라고 말했을 때,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적이냐, 혹은 무조건적이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라는 점에서, 두 관점은 대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오히려 양자는 서로의 이해를 상호 보완해 주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무조건적인 것(절대적인 것)'과 '조건적인 것'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한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예를 들면, 고레스 왕, 바울, 열두 제자들의 경우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인물을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진다. 이때의 선택은 "영원한 행복"(eternal happiness)과는 무관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선택이 아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유효하다.[103] 반면에, 하나님은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영원한 작정"(eternal decree)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 선택하고 유기되도록 함으로써 '조건적'으로 예정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의 결과에 따라 영원 전부터 선택된 여부를 알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나의 믿음은 선택으로부터 온 은

101) 이오갑,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한국교회," 「한국조직신학논총」 23(2009), 58.
102) 김홍만, "존 웨슬리가 본 칼빈주의," 「한국개혁신학」 32(2011), 26.
103) Wesley, PCC, 210.

총의 증거인 것이다.[104]

그렇다면 칼뱅이 무조건적 선택론을 위해 찾았던 성서본문들과 웨슬리가 조건적 선택론을 위해 제시했던 성서본문들은 서로 상충되는가?[105] 그럴 수 없다. 모든 성서본문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로 모아지기 때문이다.[106] 그러므로 특별히 칼뱅의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유기하는 존재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절대 주권적 신관의 본지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107] 왜냐하면 무조건적 유기는 무조건적 선택에 따르는 논리적 귀결일 뿐,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08] 그렇다면 칼뱅의 하나님도 웨슬리가 제시한 디모데전서 2:4의 하나님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웨슬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칼뱅의 자비로운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무조건적인 유기론을 가르쳤던 당시 칼뱅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반론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109] 칼뱅의 자비로운 하나님이 무조건적 유기론에 대한 칼뱅주의자들의 스콜라적이며 사변적인 교리화로 인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10] 칼뱅의 하나님은 이중예정이 지니는 불가피한 논리

---

104) Wesley, PCC, 210: "I believe election means … a divine appointment of some men to eternal happiness. But I believe this election to be *conditional*, as well as the reprobation opposite thereto. I believe the eternal decree concerning both is expressed in those words: 'He that believeth shall be saved;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damned.' And this decree, without doubt, God will not change, and man cannot resist"(필자의 강조).

105) 웨슬리가 인용한 본문들: 창 3:17; 4:7; 신 7:9, 12; 11:26-28; 30:15; 대하 15:1-2; 에 9:13-14; 시 114:9; 잠 1:23; 사 65:2f.; 겔 18:2, 20, 23; 마 11:20f.; 롬 1:20f.; 살후 2:10f.; 딤전 2:3-4 등. Wesley, PCC, 211-218.

106) Calvin, 『강요』 I, x:1, 185-1.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향한 의지가 반복적으로 칭송되고 있음을 보며 … 특히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으시다."

107) Wesley, PCC, 220. 웨슬리는 바울의 주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적 유기와 영원한 처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108) Calvin, 『강요』 III, xxiii:1. Wesley, PCC, 207. 웨슬리도 선택에 따른 유기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것은 마치 빛을 받는 곳에는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과 같은 원리와 같은 것이다. 물론 그림자가 있음으로 빛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빛과 동등하게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109) Wesley, PCC, 214.

적 사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111] 왜냐하면 칼뱅이 경험한 하나님은 "추상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며, 생생하고도, 체험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12]

하나님 편에서 본 칼뱅의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 자체는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논리로도 해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주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을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의를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113] 그러나 인간 편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부름 받은 자의 응답을 통해 무조건적 선택의 경험적 사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웨슬리뿐만 아니라 칼뱅 자신이 교회의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견지해 왔던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칼뱅과 웨슬리가 서로 달리 사용했던 수사(修辭)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자 모두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보편적 초청(universality of invitation)과 제한적 선택(peculiarity of election) 사상의 조화에서 그렇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 받아 "회개와 믿음으로 오도록" 초청하지만, 모든 자들이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않는 현실은 결국 제한된 선택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114]

---

110) 김홍만, "존 웨슬리가 본 칼빈주의," 「한국개혁신학」 32(2011), 19. 웨슬리 당시 존 길(John Gill)이 소속한 영국의 특별침례교회(Particular Baptist)에서 유행한 "하이퍼 칼비니즘"은 절대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회개의 자리가 있을 수 없게 했고, 죄에 대한 느슨한 삶이 허용됨으로써 칼뱅이 염려했던 선택 교리의 남용 현상이 빈번했다. 참조, Peter Toon, "Hyper Calvinism," *New Dictionary of Theology*, ed., S. B. Ferguson, etc. (Leicester, UK: IVP, 1988), 324-325. 심상룡, 『칼빈주의 예정론 왜 철회되어야만 하는가』 (원주: 말씀의 샘터사, 1997), 663f. 17세기 초 칼뱅주의에 대한 알미니우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도르트회의에서 결의된 소위 "칼뱅주의 5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조주의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서로서 국내 목회자에 의해 출판되었다.

111) 유태주, "예정론," 『칼빈 신학 해설』, 325. 칼뱅에게 예정교리가 그의 전 신학체계 내에서 중심적이지 않다는 관점이 많다. 참조, Wilhelm Niesel,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165f.

112) 최윤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론," 『신론』 한국조직신학회 엮음, 한국조직신학회 기획시리즈 3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39. 참조, Calvin, 『강요』 I, x:2.

113) Calvin, 『강요』 III, xxi:4, 785.

114) Calvin, 『강요』 III, xxii:10, 8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요』, III, iii:21, 165; III, xxiv, 863f.

그렇다면 초청받은 모든 자들이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 "선택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이 칼뱅의 대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칼뱅은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 성서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논증하고(암 4:7; 8:11; 행 16:6-7; 사 8:16; 53:1; 요 1:12-13; 엡 1:3-4; 마 13:11; 롬 8:29; 딤후 2:19; 시 103:17), 결정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받았느니라"(요 6:46)는 말씀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요 10:4-5)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렇다면 칼뱅이 말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웨슬리의 '조건적 선택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1) "믿음을 선택과 연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 (2) "믿음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담보, 곧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보존된 담보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 (3) "따라서 불신자들은 그의 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신다"(요 10:26)는 칼뱅의 입장은 믿음의 예지로써 예정을 말한 웨슬리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청을 받은 자들 중에 신앙으로 응답하는 일부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그 외의 불신앙으로 응답하는 자는 영원한 유기에 속한 자로 판명되는 것이다.[115]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정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칼뱅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서는 어떤 다른 원인도 찾지 말라"고 대답하며, 웨슬리도 "천사들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리기에는 너무 깊은 이러한 신비를 공격하려고 시도하지 말지어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11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고, 그들이 선택 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기인한 것이지 일체의 어떤 인간적 공로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115) Calvin, 『강요』 III, xxiii:3, 835. 하나님이 선택한 자 외에 모든 자들을 유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을 말하는가? 칼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신 것에 대해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는 극히 가증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폭군적인 잔인성"을 넘겨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할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xxiii:3, 835).

116) Calvin, 『강요』 III, xxii:10, 827-829. Wesley, OP, 293.

IV. 맺는말

칼뱅과 웨슬리 간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16세기 후반에 루터파와 칼뱅파 간의 논쟁을 회고할 필요가 있다. 칼뱅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수호하시는 분"이었고, 선택과 유기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루터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일 인간이 그의 은총을 받아들일 용의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었다.[117] 이 두 전통은 칼뱅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118] 웨슬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는 루터와 칼뱅이 활동한지 2세기 후에 두 종교개혁자들의 주장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묻는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름에 인간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결정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가? 그렇지 않다.[119] 오히려 인간 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론으로 인해 인간의 책임적 소지가 분명해지며,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예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칼뱅의 섭리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표현이거나 심판의 표현"이며, "이 세상에는 운명이나 우연과

117) Neve, J. L. 『기독교교리사』, 606.

118) 김은수, "칼빈신학의 특징과 한국 개혁신학의 과제," 「한국개혁신학」 29 (2011), 32f. 이미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루터의 『소요리문답』의 순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이신칭의, 전적타락, 죄론, 기독론, 성령의 구원사역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았고, 1536년 멜랑히톤의 『신학총론』(*Loci Communes*)를 읽었고, 프랑스어판의 서문을 썼으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의 가르침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135; 김은수, 33쪽에서 재인용)고 천명하였다.

119) Wesley, PCC, 230.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20] 하나님은 인간의 상대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자유로써 섭리하신다.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와 믿지 않음으로 멸망 받을 자의 운명에 대한 이중예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한다.[121]

무조건적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따른 무조건적 선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게 되는 "논리적 귀결"이지, 이러한 논리 자체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다.[122] 만일 누가 "사색적이고 냉철한 추론에만" 의존한다면, 예정론의 신학적 의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진다.[123] 그러므로 그것이 '이중예정론'이 되었든 '예지예정론'이 되었든 간에 어느 한 쪽만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재단(裁斷)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칼뱅과 웨슬리 양자가 분명히 밝힌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이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의 책임적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124]

주제어

칼뱅, 웨슬리, 예정론, 사중복음신학, 선택, 유기 (John Calvin, John Wesley, Predestination, Theology of Fourfold Gospel, Election, Reprobation)

* 접수일: 2013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7일

120) 이양호, "섭리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신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98. 참조, Calvin, 『강요』 I, xvi:8.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와 지배자로, 그의 지혜에 따라 영원부터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도 그의 권능으로 그가 결정하신 것을 수행하는 분으로 여긴다."(이양호, "섭리론," 199 재인용).

121) 칼뱅은 『기독교강요』 1539년 개정판 제3권에서 예정론을 섭리론과 나란히 배치했지만, 1559년 최종판에서는 분리하여 섭리론은 신론에, 예정론은 성령론에 설정하였다.

122)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1), 55.

123) Fred H. Klooster/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서울: 성광출판사, 1987), 16.

124) 이경직.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개념," 「기독교철학」 15(2012), 109. 칼뱅이나 웨슬리 모두 참된 믿음은 사랑이 동반되는 것으로 여긴다.

참고문헌

Calvin, John/원광연 역. 『기독교강요』(최종판).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_____/편집부 역. 『영한 기독교강요』(최종판). 제1-4권. 서울: 성문출판사, 1990.

_____/임원주 역. 『칼빈의 예정론 핵심 설교』. 서울: 예루살렘, 2000.

_____/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예정론』(원제: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3, ed. John T. McNeill, trans & indexed by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Sermons on Election & Reprobation by John Calvin*. Foreword by David C. Engelsma. Audubon: Old Paths Publications, 1996.

_____.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Ross Mackenzie. Grand Rapids: Eerdmans, 1960.

Wesley, John. "Predestination Calmly Considered."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X: Letters, Essays, Dialogs and Addresses, 204-259.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872.

_____. "The Scripture Doctrine of Predestination, Election, and Reprobation." *Preservative against Unsettled Notions in Religion*, 177-192. Bristol: William Pine, 1770.

_____/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공역. 『웨슬리 설교전집』 제4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육국. "한국기독교 교단별 교세현황표(2011년 기준)." 미간행물(2013. 5. 14).

김상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알미니안 칼빈주의의 태동: 한국교회의 선교 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6(2006), 383-410.

김성원. 『웨슬리안 성결신학』. 서울: 도서출판 물가에심은나무, 2011.

김영한. "한국교회의 칼빈주의 수용: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7(2010), 48-75.

김은수. "칼빈신학의 특징과 한국 개혁신학의 과제." 「한국개혁신학」 29(2011), 7-44.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1.
김종서. "현대 종교학의 비교방법론: '신 비교주의'(New Comparativism)를 중심으로." 『동서사상의 정체 형성과 21세기 한국사상의 정립에 대한 연구』, 15-50. 서울: 서울대학교철학사상 연구소, 2002.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1(2001), 61-79.
김홍만. "존 웨슬리가 본 칼빈주의." 「한국개혁신학」 32(2011), 15-46.
박창훈. "존 웨슬리와 존 플렛처의 성결론." 「역사신학논총」 8(2004), 99-123.
_____. 『존 웨슬리, 역사비평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신학연구위원회 편. 『성결교회신학: 개신교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신학』.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2007.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안재홍.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 「국제정치논총」 46/2(2006. 6), 31-56.
유창형.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에 있어서 점진성과 순간성에 대한 비교 고찰." 「성경과 신학」 45(2008), 112-141.
유태주. "예정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신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윤철원. "웨슬리와 칼빈의 성서해석 방법론의 연속성 문제." 「성결교회와 신학」 15(2006, 봄), 142-165.
이경직.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개념." 「기독교철학」 15(2012), 95-115.
이양호. "섭리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신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_____. "칼빈의 신중심주의와 한국교회." 「한국조직신학논총」 23(2009), 41-66.
이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최윤배. "성령론: 연구 방법론과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국칼빈학회 엮음.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53-173.
_____.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론." 『신론』 한국조직신학회 엮음. 한국조직신학회 기획시리즈 3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한성진.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 연구." 「역사신학논총」 8(2004), 40-58.
한철하.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Bouwsma, Willam James/이양호 · 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 1993.
Coppedge, Allan. *John Wesley in Theological Debate*. Wilmore: Wesley

Heritage Press, 1987.

Fisher, Samuel W. *John Calvin and John Wesley*. Cincinnati: Moore, Wilstach, Keys, & Co., 1856.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Holiness Union*. Cincinnati: God's Revivalist Press, 1900.

Klooster, Fred H./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서울: 성광출판사, 1987.

Lyons, Dennis D. *Calvin's and Weley's Doctrine of Assurance: A Comparative Study*. M.A.T.S Thesis, Talbot School of Theology, 1986.

Maddox, Randy.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Molina, Luis. *On Divine Foreknowledge*: Part IV of the Concordia. Trans. with an intro. & notes by Alfred J. Freddoso. Ithaca/London: Cornell Univ. Press, 1988.

Muller, Richard A. "Was Calvin a Calvinist?" *Back to the Bible: Life, Gospel and Churc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35th Anniversary of Baekseok Schools(Oct. 28, 2011), 2-37.

Neve, J. L./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Niesel, Wilhelm/이형기·조용석 공역. 『빌헬름 니젤의 칼빈신학 강의: 칼빈신학에 대한 복음적 이해』. 서울: 한들출판사, 2011.

_____/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Olson, Roger.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The Christian Century* 119/3(Jan 30-Feb 6, 2002), 37-39.

_____. *Against Calvin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1.

Paden, Willam E. "Elements of a New Comparativism." *Method &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8/1(1996), 5-14.

Pinnock, Clark.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Cumbria, UK: Paternoster, 2001.

_____ & others.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 Grove: InterVarsity, 1994.

_____. & John Cobb, ed.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Grand Rapids: Wm. Eerdmans Pub., 2000.

Ragin, Charles C./이재은 외 옮김. 『비교방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2.

Tyerman, L. *The Life and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Founder of the*

Methodists. vol. 1-3.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 1872.

Wainright, Geofrey. *Geofrey Wainright on Wesley and Calvin: Sources for Theology, Liturgy and Spirituality*. Melbourne: Uniting Church Press, 1987.

_____. *Methodists in Dialogue*. Nashville: Kingswood, 1995.

Wendel, Francois/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_____.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Michigan: Baker Books House, 1997.

Wyncoop, Mildred B./한영태 역. 『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Yocum, Dale M./손택구 역. 『기독교신조 대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연구』. 서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1988.

Zanchius, Jerom.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Stated and Asserted*. Added with A Letter to the Rev. John Wesley. Trans. Augustus Toplady. New York: George Lindsay, 1811.

Comparative Study on the Predestinatio Gemina of John Calvin and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by John Wesley: For the Dialogue between Wesleyan Holiness Theology of Fourfold Gospel and Calvinistic Reformed Theolog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n Sik Choi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uchon, Korea

This thesis tries to resolve the blockage of amicable, dialogic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different mainline denominational traditions of which theologies are represented by Wesleyanism and Calvinism. One of the obstacles is predestination theory. They have their own traditional- theological stances in matters of the issue. Namely, Presbyterians adhere to *predestinatio gemina*, while Wesleyans, the theory of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As a result, they undergo conflictory situation each other.

Meanwhile,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that turned out to be a failure, however, because their comparative method concerned only textual doctrines without situational analysis and comparison, and was ahisorical. Moreover they mainly focused on finding doctrinal differences one after another. Therefore, we apply "New Comparativism" by William Paden for the purpose of the cooperativ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instead. Its basic principles are historical, cross-cultural comparison.

The resul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From the Wesleyan stance, we found several important theological significances in *predestinatio gemina*. First, Calvin's predestination provided the grounds

of the biblical–th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Reformed churches and for individuals the salvational assurance. The base should be the faith in Christ. This does not belong to the free will but comes from God's election. On behalf of this grace of God man cannot find any room for the human merits and the free will. The token of the elected should be their faith in Christ Jesus, and as for those who are not in Him, we should call them the reprobates.

Finally, through this research we are able to establish an acknowledgement that the legitimacy of Calvin's unconditional election can be secured only from *God*'s side, and the legitimacy of Wesley's conditional election can be justified only from the *human*'s side. At this point, we conclude that from the Divine side's perspective, the human belief is the present given by God's grace, and from the human side's perspective the same belief is person's response to God's grace. When Calvin denied the foreknowledge, it was to foreknow the human *merits* in the future. When Wesley upheld it, it meant to foreknow the human *belief* in the future. These two in unison must reveal that *only* the belief in Jesus Christ i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God's salvation.